네팔·미얀마 등 불교국가 폭우 피해 속출

사원 피해 막심… 홍수에 황금 불탑 쓸려가기도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네팔·미얀마 등 불교 국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수재민은 물론 관광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네팔의 제2 도시이자 최고 휴양 도시인 포카라(Pokhara)에서는 최근 일어난 폭우로 홍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네팔 국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특히 포카라의 레이크 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으면서 현지 관광업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카하르(Khahare) 지역의 대표적인 숙박시설인 하모니 호텔, 산타나 호텔, 럭키인 호텔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거지와 식당·여행사들이 줄이어 침수 피해를 봤다.

이에 네팔의 파하리 족은 정부에 카하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포함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인 카하르개발기구협회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관광업계 뿐 아니라 불교계도 타격을 입었다. 28피트(약 8m) 높이의 불상이 있는 사찰이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정부로부터 7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네팔 휴양지 '포카라' 산사태
호텔 침수에 관광업도 '타격'
사찰 침수피해도 잇따라 발생
정부 지원 및 해결책 촉구

한편 미얀마에서는 큰 홍수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과 2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또한 불탑이 강물에 쓸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미얀마 중부 지역에 있는 파코야마 지역 파코쿠에서는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강 수위가 올라가자 사원의 황금 불탑의 기반이 약해지며 강물에 쓸려갔다. 불교 승려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는 범람한 물속에 가라앉은 탑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네팔·미얀마 ·태국·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미얀마 지역에 일어난 큰 홍수 현장으로, 이번 홍수로 수만 명의 이재민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지역 등 광범위하게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27일 발생한 홍수는 38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재해로 해당 지역에 100가구 이상이 침수되고 철로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재난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스퉁 센 강이 범람하면서 비하르 및 캄포스 지방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

두 지역의 100가구는 마을에서 대피했으며, 농지의 3천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재난 관리 위원장인 미스터빈은 "2개의 열대성 폭풍이 만나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국 LA 팜스 지역 거리에 위치한 한 불상이 백인 남성에 의해 무참히 훼손됐다.
사진출처=Lion's Roar

미국 LA 불상, 4번째 파손당해

팜스지역서 둔기로 불상 머리 부분 훼불
지역협회 불상 재건 위해 모금운동 예정

미국 로스앤젤레스 팜스 지역에 있는 한 불상이 또 다시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LA타임스' 7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백인 남성이 커다란 망치로 자스민도로와 누벨도로 사이 교통안전지대에 놓인 불상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불상은 머리 부분이 분리돼 금속 막대기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거친 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남성은 또 파손을 시도했고 불상이 금속 막대기로 고정돼 있자 2번이나 다시 머리 부분을 가격, 총 4번에 걸쳐 훼불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그는 알 카에다와 무슬림에 대해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웰라치 모터애비뉴개선협회(이하 개선협회) 책임자는 "우리는 매우 다문화적이고 절충주의적인 공동체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양한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불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불상이 있는 자리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구역이었다. 누군가가 불상을 가져다 놓은 뒤로 사람들은 쓰레기 대신 꽃을 가져놓기 시작했다.

개선협회는 "훼불행위 후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더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게 됐다. 그가 저지른 훼불행동은 도와달라는 의미다. 팜스지역의 공동체정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훼불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 교화시키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선협회는 불상을 금속으로 만들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5000달러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선 수습기자

묻혀있던 캄보디아 사원 유네스코 '3번째' 등재

유네스코가 캄보디아 고대 사원 '삼보르 프레이 쿠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7월 16일 '유로뉴스'가 밝혔다. UN문화협은 "이 사원이 6세기 후반~7세기 번영한 문명의 수도로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994년 이전까지 삼보르 프레이 쿠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원이었다. 샘 놈 삼보르 프레이 쿠크사원 대표는 "오랫동안 쓸쓸한 사원이었는데, 우리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관리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사원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1992년 지정된 앙코르와트, 2008년 지정된 프레아비히어 사원 포함 총 3개의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박진형 수습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삼보르 프레이 쿠크' 사원.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뉴욕서 두 백인 비구 스님 '웨딩마치'

6월 23일 한 저택서 결혼식
첫 만남 후 호스피스서 사랑 키워

6월 23일 뉴욕 첼시의 한 저택서 두 백인 비구 스님의 결혼식이 거행됐다고 7월 7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주인공은 고신 패일리 엘리슨(47)과 로버트 초도 켐프벨(64).

고신과 초도는 일본 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 스님이자 뉴욕명상케어선센터의 창립자들이다. 일본조동종은 선과 명상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다수 불교종파로, 결혼이 가능하다. 고신과 초도는 각각 2002년과 2005년 스님이 됐다.

이 둘의 첫 만남은 1995년 맨하탄 불교기관 젠도마을에서 이뤄졌다. 당시 새그하버에 살던 초도는 여행을 다녀오던 중 잠시 명상을 하기 위해 맨하탄 젠도마을에 들렀다. 고신은 그때 젠도마을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초도는 "당시 고신에게 첫 눈에 반했지만 말을 걸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2002년 뉴욕 첼시의 선 명상센터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다. 7년만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봤다. 초도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둘의 연은 지속될 수 있었다.

고신은 당시 할머니 미미의 간병인이었다. 초도는 봉사 하던 호스피스로 고신과 미미를 모셨다. 이 호스피스센터에서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초도는 고신의 할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다. 미미 역시 초도를 아꼈다. 초도는 "어느 날 미미가 나를 불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고신을 잘 보살펴다오'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물론이죠'라고 힘차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미는 세상을 떴다"고 회고했다.

미미의 죽음을 함께한 뒤 초도는 고신과의 결혼을 결심했다. 당시에는 뉴욕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합법화) 둘은 2007년 3월 맨하탄 선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선물이나 축의금을 받는 대신 그들의 선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받았다. 이때 함께했던 알렉스 비더는 "둘의 비공식적 결혼에도 많은 선불자들이 함께 축하했다. 초도와 고신의 첫 아이는 바로 이 명상센터다"며 웃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둘의 합법적 결혼식이 조종동 신도인 누머로프의 집에서 열렸다. 고신과 초도는 승복을 입은 채 손을 맞잡고 걸었다. 하객 답례품은 작은 불상이었다. 장소를 제공한 누머로프는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스님이 많이 위로해줬다"며 "둘은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는 스님들이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둘을 축복했다.


일본 조동종 소속 고신 패일리 엘리슨(47)과 로버트 초도 켐프벨(64) 스님은 6월 23일 뉴욕 첼시의 한 저택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출처=뉴욕타임스

박진형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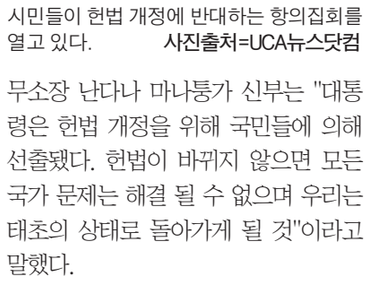
스리랑카 승가 "헌법 개정 반대" 결의

'불교=가장 중요한 종교' 인정 기존 헌법 개정 반대

스리랑카 스님들이 불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로 인정하는 기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고승들은 7월 4일 특별위원회 토론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UCA뉴스닷컴'은 7월 7일 보도했다.

현행 헌법은 단원적 의회, 대통령 중심 행정부 체제와 불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 개혁, 행정부 체제 개편 및 권한 위임 등 현행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권리 운동가들 또한 정부가 새로운 선거 개혁과 소수민족인 타밀족과의 정치적 해결 방안 및 인권보장을 담은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캔디인권사무소장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는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됐다.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국가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UCA뉴스닷컴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 의회를 헌법위원회로 전환시켰다. 위원회는 이미 정부에 여론조사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지선 수습기자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참석 신청 일시 : 2017년 8월 15일까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